

사회

골목길 청소년 집단폭력 시의원이 뺨때려 말렸는데...

서정성 시의원, 중학생 혼계하다 손찌검 학생들 신고 피의자로... 경찰 조사 방침

해가 뉘엿 뉘엿 넘어가던 지난 5일 오후 6시40분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으스스한 골목길에서 5명의 중학생이 다른 학생 1명을 때리고 있었다. 학생들은 한 명에게 주먹과 발길질을 했고, 맞아서 뒤로 밀려난 학생에게 "앞으로 와"라며 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같은 시각 골목길과 가까운 건물 2층 식당에서 밥을 먹던 서정성 광주시의원(41·남구 2)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식사 도중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던 서 의원이 통화를 끝낼 때까지 '상황'은 계속됐다. 순간 서 의원은 이를 전형적인 '학교폭력'이라고 단정하고 슬리퍼를 신은 채 현장으로 달려갔다.

"너희 어디 학교야?" "00중 3학년인데요. 왜 그러세요?" 5명의 학생에게 맞고 있던 학생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침 지난해 해당 학교 운영위원을 맡았던 서 의원은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교장은 "30분 안에 교사를 보내겠다"고 답했다.

문제는 서 의원이 폭력을 휘둘렀다고 생각한 학생들에게 기다리

라고 하는 사이 발생했다. 그 중 A(15)군이 "아저씨가 무슨 상관인데 참견이나"며 서 의원을 노려보곤 했다.

서 의원은 "당치 큰 중학생 5명이 한꺼번에 달려든다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을 느낀 상태에서, 학생이 쩌러보며 불손하게 구는 바람에 뺨을 때렸다.

이후 잠잠해진 5명을 골목길에서 큰 도로로 데리고 나와 편의점 테이블에 앉혔다.

그런데 이번에는 B(15)군이 "옷 갈아입으러 가야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서 의원은 B군을 붙잡아두기 위해 뺨을 때린 사이 3명은 달아나버렸다.

10여 분 뒤 덕과출소 소속 순찰차가 서 의원과 나머지 학생 앞에 나타났다. 달아난 학생 3명이 서 의원을 신고한 것이다.

서 의원은 "전후사정은 없애고 학생을 때린 사실만 부각됐다"며 "미성년자이니 학부모가 처벌을 원하면 수사를 해야한다"는 말에 기분이 안 좋아 나중에 조사받겠다고 일단 귀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폭력사

건으로 간주, 서 의원에 맞은 학생 2명에게 8일 피해자 조서를 받았다. 이 학생들은 경찰에서 "6명이 모두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평소에도 우리들끼리 과격하게 장난을 친다"며 "그날도 우리끼리 장난하고 있었고 이 학생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었는데 아저씨가 오해했다"고 말했다.

5명에게 맞은 C(15)군 역시 경찰과 학교에서 "단순히 장난쳤을 뿐"이라고 말해 서 의원을 폭력 피의자 신분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학생 부모들이 "애들이 버릇없이 굴었던 면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서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데다 서 의원 역시 "학생들을 때린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경찰은 "조만간 서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며 "일반적으로 단순 폭행사건의 경우 합의서가 제출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 비슷한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관여해야 할 지 고민하게 될 것 같다"며 "학교폭력이 얼마나 해결하기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끼게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출하량 붐물... 수박값 '뚝'

지난 7일 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시장에 출하된 수박들이 싱싱해 보인다. 이날 경매가격은 상품 기준 1개당 최고 1만2800원, 평균가 7800원 선으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檢, 전남대 총장 당선자 조사

교수협 "대학 공백 없어"

전남대 총장후보 선거 부정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8일 오후 박창수(59·의학과) 총장 1위 당선자를 불러 선거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중)는 제19대 전남대 총장후보 선거

과정에서 식사 대접과 향음 제공 등의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날 오후 박 당선자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전남대 본교 정보전산원, 교수연구실, 여수캠퍼스 교수연구실, 전남대 의대 교수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주 박

당선자의 측근으로 알려진 교수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전남대 교수협회의회는 지난 6일 대학 운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수사가 조속히, 그리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호남고속도 4중 추돌 2명 숨져

완도선 농부 감전사

지난 주말 광주·전남 지역에 장맛비가 쏟아진 가운데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고속버스가 연쇄 추돌하고 눈에 나갔던 농부가 감전사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8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4시15분께 장성군 남면 못재터널과 광주터널이 중간지점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중앙분리대

와 부딪힌 마르샤를 티코가 추돌했다. 이어 10여분 뒤 고속버스가 사고현장을 덮치고 뒤따라오던 K5승용차가 티코를 들이받으면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티코 운전자 이모(64)씨와 마르샤 운전자 김모(28)씨 등 2명이 이 자리에서 숨지고, 버스 승객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경찰은 탑승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7일 오전 10시52분께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여수-순천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택시와 관광버스가 추돌해 택시운전자 홍모(58)씨가 숨지고 버스 승객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관광버스는 여수세계박람회 관광객을 태우고 박람회장으로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6일 오후 1시10분께 완도군 군외면 농로에서 비가 내리는 중 전기작업을 하던 김모(67)씨가 감전사고로 숨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부부가 마트 돌며 700만원 옷 절도

도난방지 장치 제거

광주남부경찰은 8일 도난방지장치를 제거하기 위한 도구를 제작해 대형마트와 의류매장 등에서 옷을 훔친 박모(53)·송모(여·50)씨 부부

를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지난 3월 초부터 지난 5월 중순까지 광주지역 대형마트와 유명 등산용품 매장에서 모두 37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

의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의류에 부착된 도난방지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포크와 낫집줄을 이용해 12cm 크기의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장 관리인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노려 도난방지장치를 제거한 옷을 꺼내고 나오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주부 건강증, 아차하면 집 태운다"

가스레인지 켜 놓고 깜박 광주 주택화재의 30%나

광주지역 주택화재의 30%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주부들의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들이 40대 중반을 넘기면서 젊음에 비해 집중력이 떨어져, 가스레인지 사용과 여러 가지 가사 일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실수가 잦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나이에 따른

집중력 저하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집안 일에 가족들이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상반기 광주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144건 중 음식을 조리하거나 빨래를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경우가 42건으로 전체의 29.2%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대부분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이나 빨래를 올려놓고 잠이 들거나 장시간 외출해서 발생하는 경우였다. 올해 상반기 광주

에서는 주택화재 144건이 일어나 인명피해는 7명, 재산피해는 2억7000만원에 달했다. 가스레인지 사용 부주의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원인 27건, 담배꽂초 11건, 방화 또는 방화심 10건 등의 순이었다.

조선대병원 정신과 박상학 교수는 "(주부가)다양한 일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끔찍, 짐 등 장시간이 걸리는 실수 횟수가 많으면 전문의를 찾아 도움을 얻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8604) 김종두



'신정아 학력위조' 패소 동국대, 美 법원에 항소

'신정아 가짜 학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동국대가 항소했다. 동국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에 불복해 지난 5일 미국 코네티컷주(州) 연방법원에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동국대는 2008년 예일대가 신씨의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확인해 주고 나서 신씨를 교수로 임용했다가 신씨의 학위 위조 사건이 불거지자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남자 대학생이 20대 남성에 음란전화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20대 남성에게 수신차에 걸쳐 음란전화를 건 10대 대학생이 경찰서행.

○8일 광주서부경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오모(18·대전시 서구)군은 지난 1월31일부터 5월10일까지 강모(24·광주시 서구)씨에게 50여차례 전화를 걸어 "팬티를 보여달라" 등의 농담을 했다는 것.

○"동중 전과 2반인 오군은 경찰에서 "재미로 장난삼아 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실내골프연습장 SKY 골프 Club 연습장

최첨단 스윙분석기·타석스크린 전타석 설치!!
방향, 비거리, 스윙동영상을 동시에!!

새벽반(6:00) 환영

- 드라이빙레인지 모드
- 스윙분석
- 훈련모드(퍼팅, 어프로치 연습)
- PAR3 게임모드
- 스트로크 게임모드

연습장 이용시간

평일	06:00 ~ 23:00
토요일	10:00 ~ 22:00
일요일·공휴일	12:00 ~ 20:00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 쉽니다.

Tel. 372-3900 H.P. 010-3635-3784
서구 치평동 1187-2 월계수타운 지하1층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인터넷·안마기·세션·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